

##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

성경말씀: 요6:60-71

현 시대 미국의 많은 교회, 많은 목사들, 설교하는 목사 시각에서 가장 출중한 두 사람: 파이퍼, 맥아더  
파이퍼: 감성적, 잘못하면 감정에 빠질 수 있다. 맥아더: 지성적, 결단력(동성 결혼 합법화 반대 설교)  
두 분 다 칼빈주의자라 나와 교리 면에서는 다른 점이 있으나 목회자, 설교자로서는 심히 훌륭한 분  
18.3.24, 설교 퀴즈, 맥아더의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로 본 참된 성도의 의미>

모티브가 좋아서 언젠가는 한 번 설교하겠다고 다짐함, 미루다가 드디어 오늘 < >으로 하려고 함

### 긍정적 측면에서 두 사람의 비슷한 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수행하심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시작, 그리고는 12명의 자들을 뽑음(마10:1-4)

이들에게는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파워가 주어짐(1). 베드로와 가룟 유다도 포함됨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다니며 동거 동락함, 예수님의 기적들을 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음 “나는 희생물이 아니라 공흠을 원한다.” 겔과 속이 다른 위선을 버려야 한다. 대표적 사례; 바리새인, 서기관 등 세리와 창녀들을 사랑하시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한 마음,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려고 왔다가 거의 다 돌아감,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요6:60-71), 66-69  
여하튼 열심히 일을 했기에 예수님의 약속을 받음(19:27-28)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직접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섬김의 도리를 보여 주심(요13)

마지막 만찬에도 참석, 유다는 아마도 예수님의 바로 옆 왼쪽에, 베드로는 멀리(요13:22-26)

그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신임을 얻어 돈 가방을 관리함

다른 사람들과 달리 질적으로 우수한 시간: 둘 다 주님이 누구인줄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짐  
여기까지만 보면 가룟 유다는 히틀러, 모택동, 김일성 같은 살인마가 아니다. 겉으로 볼 때 지성인,  
이성적인 사람, 사리 판단할 줄 알고 머리가 명석한 사람

대다수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 무식할 수 있다. 그는 가룟(이스카리옷) 사람, 배운 사람, 돈 가방, 매니저

### 부정적 측면에서 두 사람의 같은 점

이 두 사람 모두 사탄 마귀라 칭함을 받음(요6:70-71), 마16:21-23

둘 다 마귀의 영향을 받음, 둘 다 예수님이 정치적인 지도자 왕이 되기를 원함, 로마 제국을 없애고  
유대인 왕국을 세우기를 원함, 즉 3년 반 동안의 생활이 변화를 가져오지 못함

둘 다 예수님을 배반함, 유다는 돈을 받고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그분 배반, 은 30개는 노예의 몸값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주님은 모두가 부인할 것이라고 말함, 베드로는 절대로 안 그런다고 함(눅22:33,  
감옥에도 죽는 데에도 갈 각오가 되어 있다). 베드로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 앞에서 그분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함,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까지 함, 둘 다 차이가 없음

### 두 사람의 차이

성경기록을 그대로 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베드로와 유다가 아님, 베드로는 천국, 유다는 지옥

그런데 알고 보니 둘 다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

왜 우리는 왜 베드로는 사랑하고 유다는 싫어하는가? 아들 이름을 가룟 유다 No, 베드로 Yes

어떤 사람들의 주장: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다. 그런데 유다는 그 사실을 먼저 알았다(마27:3).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둘의 차이는 거의 없다. 그런데 베드로는 구원받아 천국에 갔다. 유다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갔다. 야곱과 에서를 보라. 에서가 더 나은 사람 같지 않은가? 동생을 용서하고.

둘의 차이는 영원의 문제이다. 서로 비슷한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는가?

지금 식으로 하면 둘 다 교회에 열심히 다녔다. 둘 다 교회 일에 누구보다 열심을 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영원히 천국, 한 사람은 영원히 지옥, 무슨 차이가 있는가?

우리는 지금 죽어도 분명히 천국에 감을 알고 있는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둘 다 죄인으로 비슷한 사람을 살았지만 베드로는 천국을 소유할 자격이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51-56, 60-62, 하늘의 빵 설교, 유다 63-64, 이미 믿지 않는 자들 언급하심(40),

베드로의 고백(67-69), 믿는 자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 믿었다. 그런데 유다는 믿지 않았다(64절).

구원은 여기에 달려 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성경 읽기, 주일 성수, 십일조 헌금 No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다. 울어도 못한다, 힘서도 못한다.

웬만한 사람은 죄를 지으면 눈물을 흘리고 반성한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여러분은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갈지 확실하는가? 천국에 가는지 확실하는가? 왜 확실하는가?

모든 죄악,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한 것을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요3:16, 종교 행위가 아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다는 믿음

그분을 그저 사대 성인 좋은 사람으로 믿으면 가룟 유다 신세

어떤 사람의 글, “베드로는 천국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천국이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 이삭, 요셉, 모세, 다윗 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쟁이, 도둑, 사기꾼, 창녀, 알코올 중독자가 가득하였습니다.

내 돈을 훔친 아이, 상냥하게 말을 걸지 않았던 이웃 사람, “하나님 혹시 실수하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애야, 저 사람들도 네가 여기 온 것을 보고 놀랐단다.” 고전6:9-11

구원은 우리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이야기 듣고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로 믿어야 받는다. 당신은 확실하는가?

### 현 시대의 예

1. 이승만(1875-1965), 김일성(1912-1994), 둘 다 기독교와 예수님을 접함, 그런데 이 둘의 운명은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운명, 하나는 천국에, 하나는 지옥에, 하나는 수천만 명에게 자유, 다른 하나는 수천만 명에게 압제와 속박, 500만 명을 죽임,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둘 다 교회에 다녔다. 차이: 이승만은 예수님을 알았고 김일성은 예수님에 대해 알았다. 김일성은 선무당이 사람 죽이는 사례

2. 극악무도하게 기독교를 탄압한 김일성은 기독교 집안에서 출생, 아버지 김형직은 1911년 미국의 기독교 단체가 만든 미션 스쿨 숭실중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어머니 강반석은 창덕학교 교장 강돈욱 장로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반석이란 이름도 성경(반석은 베드로의 별명)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강반석은 고향인 칠골교회의 집사로 봉직했다고 합니다. 김일성은 어린 시절 어머니를 따라 매주 교회에 나갔다고 합니다. 주일학교에서 김일성의 외할아버지 강돈욱은 성경을 가르치고 그의 육촌동생 강양욱은 소년 김일성의 주일학교 담당 교사였다고 합니다.

인간의 가치관 형성에 어린 시절의 체험이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김일성식 북한 공산주의의 의식과 행태에서 보이는 기독교적인 요소(십계명과 유일사상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의 유사성 등)가 김일성의 이런 체험에서 유래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의 기독교 체험은 그가 중국으로 건너가 증오와 거짓의 이론인 공산주의와 만나면서 마귀의 논리로 변질되어 노예제 사회의 수령 지배 체제를 지탱하는 도구로 악용됩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주의는 가짜 기독교가 악성 공산주의와 교배하여 낳은 변종인 셈이다. 말 그대로 그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에 대해 알았지만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인 줄 몰랐다.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반대자 숙청, 아오지 탄광, 요덕 수용소, 기쁨 조 호위호식 멍멍거리며 살았지만 지금은 가룟 유다처럼 지옥의 아랫목 차지

3. 이승만 박사는 원래 전주 이씨 양녕대군의 후손으로서 끈질기게 과거 시험에 도전, 낙방을 거듭한 사람입니다. 갑오경장으로 과거 시험이 없어지자 좌절해 있을 때 친구의 소개로 배재학당에 나가면서 미국인 선교사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승만이 수구세력에서 개화세력으로 바뀌는 매개 역할을 기독교가 수행한 것입니다. 그는 한성감옥에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확신, 성령님에 의해 다시 태어나는 경험, 그래서 영원토록 천국 시민이 됨

이승만의 기독교 정신은 미국으로 건너가 합리정신, 과학정신, 청교도 정신, 자유민주주의와 만나 더욱 심화되면서 국민국가 건설의 윤리와 이념이 되었습니다. 이승만이 미국 사람들보다도 더 일찍 스탈린과 공산당의 본질 및 전략을 간파한 다음 대한민국을 반공(反共) 자유민주주의 토대 위에 세우기로 결심한 것은 그의 기독교적 세계관이 공산주의의 내면을 투시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4. 조갑제 씨의 말: 인간의 운명은 어떤 무대에서 노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면이 강합니다. 김일성은 후진된 대륙문화권에서 기었고, 이승만은 선진 해양문화권에서 뛰었습니다. 독재-미신-폐쇄-권력주의의 대륙성과 자유민주주의-개방-관용-과학-법치주의의 해양성은 지금도 한반도에서 격돌하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을 숭배하면 멸망, 미국, 영국을 따르면 성공  
 똑같이 기독교에서 출발한 남북한 두 지도자는 그 후 체험으로 인해 사탄의 제자와 자유의 수호자란 두 극단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자유민주주의=대한민국」 대 「가짜 기독교+스탈린 이즘=북한 수령시대 체제」. 여기서 가짜 기독교인 김정일 세력은 남한의 기독교에 침투하여 거짓 선지자들을 많이 만들어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정일이나 남한의 거짓 선지자들은 폭력과 거짓으로써 인간이 가진 야만성, 악마성, 야수성에 파고들었습니다.
5. 한국 기독교는 19세기 말 한국에 들어온 이후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스스로를 일치시킨 애국·애족 종교로 승화되었습니다. 개화기에 한국 기독교는 언더우드, 알렌, 아펜젤러 등 외국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교육기관, 병원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광혜원, 이화여대, 배재학당 등이 대표적입니다. 기독교는 주로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해졌고 여기서 한미(韓美) 간의 우호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독립운동에 기독교가 나섰습니다. 3·1운동이야말로 기독교가 민족의 운명과 손잡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33인의 지도자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1 운동의 비폭력 무저항주의 정신은 기독교식 저항운동의 한 표상이 되었습니다. 평양의 산정현 교회 주기철 목사의 순교가 상징하듯 한국의 기독교는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저항하였습니다. 광복 후 기독교는 악마의 교리인 공산주의와 대결해야 했습니다. 조만식 선생이 대표하는 북한의 기독교 세력은 소련·북한 공산당의 탄압에 희생되었습니다. 많은 북한의 기독교도들이 남쪽으로 내려와 남한에서 기독교를 확산시켰습니다. 남한의 기독교 세력은 독실한 기독교 신도인 이승만이 지휘한 건국 운동에 동참하였습니다. 많은 기독교 신도들은 6·25 전쟁 중 납북되고 학살당했습니다. 두 아들을 공산당 손에 잃고서도 그 범인을 용서했던 손양원 목사의 순교가 대표적입니다. 근대화 시기 한국의 기독교는 근대화에 필요한 직업윤리를 확산시키는 한편으로 근대화에서 소외된 노동자, 빈민층을 돕는 데 앞장섰습니다.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 한국 교회는 하나의 성역이자 센터가 되었습니다. 북한이 대기근을 만나 탈북자들이 만주에서 많이 방황하게 되자 우리 교회는 이들을 돕는 데 앞장섰습니다. 정부가 외면하거나 포기한 탈북자들을 교회가 보호하고 구출하여 한국으로 데려오는 사례가 많이 생겼습니다.
6. 한국 사회에 들어온 악마적 사교(邪敎)인 공산주의와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의 대결은 곧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며 통일의 모습을 그려낼 것입니다. 사탄의 제자로서 스스로 우상이 되어 하나님에게 도전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광신교도를 한반도에서 제거해야 하는 임무는 기독교에 부여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의 말씀을 빌려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북한에 공산주의를 설치하여 그것을 때로 삼아 한국의 기독교 세력을 단련시키고, 이 기독교 세력을 써서 지구상의 마지막 전체주의를 끝장내려고 작심한 모양입니다. 김일성에게 쫓겨났던 기독교가 그 아들과 손자를 상대로 사랑의 복수를 성공시킬 때 북한 주민들은 구출되고 정의는 구현될 것입니다(조갑제).
7. 조갑제씨는 성경적 의미의 그리스도인은 아닐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기독교가 들어가면 개인과 가정과 사회에 들어가면 어떤 변화를 이루는지 정확히 파악하였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정신

#### 결론

베드로, 가룟 유다, 이승만, 김일성, 우리 모든 인간 죄 투성이, 우리 행위로는 구원 불가(딤후3:3-7).  
 기독교의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요17:3)  
 이렇게 알고 믿으면 반드시 삶에 변화가 생긴다: 침체된 삶에서 변화, 베드로 가장 위대한 설교자, 초대 교회 확립, 이승만: 자유 민주주의 체제 확립, 반공주의 확립, 수천만 명에게 자유 선사  
 그렇지 않으면 지옥 행, 삶도 불행, 가룟 유다처럼 자살: 좌파 정치인들의 자살, 김일성처럼 수천만 명 학대, 학살,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확히 예수님 교육, 하나님의 올바른 가치 교육  
 대통령의 언행이 공산주의자, 청와대 행진관의 3분의 1 주사파, 주님께서 위기에 처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하다.